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네 말이 옳도다 성경: 마가복음 15장 1-15절

Tag: 고난,수난,종려주일,신약성경,마가복음

1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

2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3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4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5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6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7 민란을 꾸미고 그 민란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리새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8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9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10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앎이러라

11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리새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12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13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4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이나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15 빌라도가 무리에게 민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버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막15:1-15)

오늘 말씀은 드디어 성 금요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마가복음에는 ‘네 말이 옳도다’라는 한마디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마가복음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요한은 당시 대제사장들과도 친분이 있어서 당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곁에서 모든 것을 자세히 보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십자가 바로 밑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기에 세밀한 부분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반면 마가는 겐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친 이후로 다락방에 숨었을 것이다. 당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의 진입에는 성공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 이후로는 도망간 것으로 추측된다. (아마 마가의 다락방 일 것이다.)

마가를 실제적으로 교육시키며, 예수님과 관련된 세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다. 마태나 누가는 마가의 기록을 참고한 다음에 다른 이야기들도 첨가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한다.

그러나 사도요한 만큼은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 경험하고 기록하였기 때문에 훨씬 디테일한 묘사가 가능했다.

오늘 등장하는 빌라도는 고향이 그림지만 갈 수 없는 로마 총독이다.

그는 군인이고, 자신이 파견된 지역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빌라도로서는 이 사건이 반역 사건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서는 반역이라면 그 뿌리까지 제거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것이다.

그 소문의 진위만큼은 모르더라도 최소한 반역의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쯤은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반역에 해당하는 사건이니만큼 부디 이 사람을 반역죄로 처단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 심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대제사장들이 동원한 군중들이 데모를 하고 있었다.(소위 촛불 부대들이다.) 동원된 군중들은 불량한 자들이었다. 그날 술값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덤비는 비류들이었다. 사회 불만 세력들, 깡패들, 무법자들, 서슴없이 대중의 힘으로 죄를 저지르고 남는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데모를 하였다.

빌라도는 이 사건이 모함이라는 결론을 심중에 내린 듯하다. 그러나 심문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마가는 ‘네 말이 옳도다’라고 짧게 대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무튼 표면적으로는 결국 정치적 이유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니까)

그러나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예수님은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대제사장들이 너에게 한 말이냐’고 되물으셨다.

이 질문에 빌라도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빌라도로서는 그때까지 이 사건은 남의 나라 일이었다. 자신은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 다만 저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못된 모함을 하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빌라도 자신의 입장을 묻고 있는 것이다. 왜냐면 그가 최종 판결권자이기 때문이다. 빌라도로서는 제3자의 입장이었는데, 예수님의 질문으로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 버린 셈이다.

예수님의 질문 요지는 이것이다. 빌라도, 네가 직접 판결해야 할 문제 아니니? 너, 총독아니니? 네 책임 아니니? 대제사장들에게 이 판결 떠 넘길거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사실은 만왕의 왕이다.) 다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을 뿐이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하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다.

37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요 18:37)

음성;voice. 목소리. 굳이 ‘내 말, 내 사상’ 이 아닌, 내 목소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의 부모를 그 목소리로 알아보는 새끼의 동물적 감각을 떠올리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뜻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이 진리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작동한다.

(진리에 대한 영적인 감각은 정치적 의도나, 경제적 의도나, 사회적 의도, 또는 종교적 의도, 그리고 도덕적 의도가 순전할 경우 제대로 된 반응을 하게 된다.)

이때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되뇌인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되뇌임이다. 그 진리라는게 나와 무슨 상관에 있지? (군인에게는 힘이 곧 진리다. 승리가 곧 진리다. 이 상황에서 내가 총독의 권위와 통치에서 실패하면 나의 인생은 여기에서 끝난다는 생각밖에 없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에 대한 자기 반응이다. 복음이 나와 상관있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나와 무관한 이야기인가? 빌라도는 나와 무관한 이야기라고 결론 내린다.

당신이 만약 빌라도였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예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나는 이 사람에게 십자가형을 집행할 수 없다. 만약 당신들이 계속해서 부당하게 십자가형을 요구한다면 나는 당신들을 무고죄로 체포할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진리를 믿는데는 댓가가 따른다. 그러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다시 산헤드린으로 데려갔을 것이요, 그곳에서 종교재판을 하

였을 것이요, 예수님은 반역죄로 인한 십자가형이 아닌, 신성모독으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제사장은 예수를 믿는 수많은 군중들이 두려웠고, 빌라도는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반역자이니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라는 데모꾼들의 소요가 두려웠다.(여론이란 부침개 뒤집히듯 바뀌는 것.)

두 부류 모두 다 비겁한 자들이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두 부류의 비겁한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 당하셨다. 이들은 결코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멸망을 당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진리를 인정하는데는 댓가가 따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겁을 선택하고, 적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선택한다. 진리를 선택한다. 진실을 선택한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전진한다. 변화된다. 새로운 시대로 진입해 들어간다. 바로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닦아 놓으신 것이다.

다만 오늘 우리의 숙제는 오늘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고, 무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셨다. 홀로 책임을 지셨다. 비겁한 무리들에게 버림을 죽임을 당하셨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심으로 원수 마귀에게 치명상을 입히셨다. 역사 안에서 더 이상 그들이 악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마귀의 무기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도의 승전깃발이 되었다. 왜냐면 모든 성도는 부활하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역사에 실현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이다. 십자가를 믿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신분변화를 뜻하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성경: 사도행전 18장 5-11절

Tag:

5 실라와 디모테가 마케도나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6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7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8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9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1 일 년 육 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행18:5-11)

1.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정해진 규칙은 없다 다만...)

-복음은 대상자의 형편을 먼저 살피는 것이 순서

-일본의 특성이 복음화를 막게 되었다. 군국주의로 인한 천황 숭배 사상. (기독교 엘리트 의식 심화가 가능성을 높일지 모름)

-지역의 특성을 살피는 것도 중요.

-정서적 접근이 필요하다.(지성이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에 접근하기 위한 접촉점만큼은 정서적 접근이 중요함. 그래야 확신이 강해질 수 있으며, 정서적 접근은 좋는데 지성적인 바침이 없으면

곧바로 사기꾼으로 여겨짐) 사람의 의사결정에는 정서적 조건이 필수적이다. 논리적 조건은 오히려 부수적이다. 논리란 정서적 조건이 맞으면 부수적인 증언과 응원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드러나는 것)

- 음성으로 영혼의 껍질을 깨라.(이때의 상황화가 중요함.)
-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라.
- 영혼은 머리에 있는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 가슴에 있다.

2. 복음의 내용은 변함없이 (복음에는 신비가 있다. 신화가 아닌. 신비와 신화의 차이는 연속성에 있다. 복음의 신비의 핵심은 사람의 변화 가치관과 삶의 태도의 변화, 삶과 사회의 변화)

- 복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마치 아기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듯.
- 사람으로서는 부족하다.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하다.
- 죄의 핵심은 우상숭배. 하나님 대체물.
- 사람은 부활하는 존재(No 환생)
- 오직 복음만 우리를 복되게 한다

3. 핍박이 있으면 피하여서

- 항상 핍박이 있지는 않는다.
- 핍박하는 자와 대적하지 말라.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
- 핍박을 피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 마귀의 승리는 진흙탕이 되는 것.
- 핍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신다.(경찰출동)
- 억울하게 핍박당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있다.

4. 강론을 통해서 복음이 삶 되게 하라

- sun rise, sun set
- 진짜 복음의 진수는 강론을 통해서

-진짜 예수 믿는 맛은 강론을 통해서. 이런 기쁨이 없어서 세속적인 쾌락에 빠진다.

-다른 세속적인 쾌락이 덧없어진다.

-진리를 기뻐하는 시간이다. 배우고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배움이 기쁨이 될 때 나의 가치관과 삶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달라진다. 핏줄이 양반이어서 배우는게 아니라 사실은 배우면서 군자가 되어간다.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자가 청지기

42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눅12:42)

-말씀 전체가 복음이다.